

# 해설 포인트

## 1. 사직 정문 옆 지도

사직 개괄 설명(10~15분)

자기소개

사직의 의미, 역사, 조선의 사직 연혁(사직 도면, 일제 강점기 사직 사진자료)

사직단 현재 모습

부속건물 설명

## 2. 사직단 복신문 앞

사직단 구성의 의미 (단, 유 설명, 각 문의 의미 등)

## 3. 사직단 안

사직제례의 절차, 시일, 임금 및 제관의 동선, 신실 등(사진자료)

사직제례의 역사. 점차적으로 의미가 부여되고, 중요성이 부각된 이야기.

## 4. 전사청 권역 이동

일제시기 변화된 사직단 구성, 근현대의 사직단 모습(사진자료)

부속건물 대강의 위치와 현재 사직의 의미.

## 인사

### (지도)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문화숨결 궁궐길라잡이 활동을 하고 있는 김태경이라고 합니다. 궁궐길라잡이는 매주 일요일 5대궁궐과 종묘에서 해설활동을 하고 있으며, 조선 왕실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이곳 사직까지 해설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직해설은 일요일 한 타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직 공원 방문해보신적 있으신가요? 네 이 공간을 우리는 사직공원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보시다시피 ‘사직단’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왜 이 공간의 이름이 두 가지로 불리는 지 지금 우리가 서있는 이곳부터 전체적인 공간을 한 번 돌아보면서 사직공원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직공원은 대한제국 말기부터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직단으로서 원래 조선시대에 종묘와 함께 가장 중요한 제사 공간이었습니다. 사극에서 “전하 종사가 위태롭사옵니다”, 혹은 “전하 종묘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하는 대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즉 사직단은 조선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상징적인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일제시기부터 그 의미를 점차적으로 잃어가고, 공간 역시 원래의 모습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정신을 ‘개조’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창씨개명 등의 사례가 있음) 바로 조선의 역사를 서서히 지우는 작업을 함으로써 정신적으로도 일본 제국주의의 신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사직단도 바로 그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경궁 -> 창경원의 사례)

사직단은 1909년, 대한제국 말기에 사직공원으로 격하되었습니다. 또한 1908년 사직제사가 철폐되었지요. 나아가 1911년에는 이 일대에 있던 사직서 관련 건물들이 이관되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공간에 백성들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임금이 직접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었고, 그만큼 임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인데요. 일제는 이 공간을 공원화 하면서 일반 국민들도 이 공간을 드나들 수 있게 하였고, 권위의 상징이었던 공간의 권위를 공간을 조정함으로써 실추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 1922년 본격적으로 이 공간을 공원화작업을 시작합니다. 도로가 확장되고, 공원 내에 산책로 벤치 등이 설치되게 됩니다. 엄숙한 공간이었던 곳에 화려한 꽃나무와 단풍나무도 식재되게 됩니다.

그리고 1933년에는 매동공립보통학교가 준공되며, 1941년도에는 어린이 수영장 등이 생기면서 원래의 모습을 거의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복 이후에도 이 공간은 여전히 사직공원으로 남아있습니다. 놀이터 자리에 있던 어린이 수영장은 없어지고(파라다이스 수영장은 전사청 권역) 현재는 종로구 어린이 도서관, 매동초등학교 등이 사직공원 내의 영역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직단의 본래 모습 찾기는 1988년 9월 21일 서울시와 종로구청에서 복원되기 시작하였으며, 전주이씨 대동종약원과 함께 사직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쯤에 오시면 저녁에 사직제를 재현하는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사직제례는 2000년 10월 19일 중요무형문화재 제111호로 지정됨)

사실 지금은 이 공간 안에 여러 현대적인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직단 자체를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간을 예전모

습으로 복원해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저희가 드리는 해설로서 예전 모습을 복기해보고, 또 현재에 이 공간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로써 복원할 수 있는 사직단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직공원 그리고 사직단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 (대문 뒤로 이동)

먼저 사직의 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문을 등지고 섬)**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는 담장이 있고, 저희가 들어온 오른쪽에는 담장이 없습니다. 원래 담장이 있었을까요? 네. 원래 담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시는 담장은 예전 모습이 아니고요. 또 대문 역시 예전 모습 그대로는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원이었던 시절과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직의 대문의 위치는 원래 이 자리가 아닙니다. 원래는 저 앞에 횡단보도 건너편 즈음에 위치해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1962년 도시 계획을 하면서 사직로를 확장하고 사직터널과의 연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14M 후방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직단의 현판을 새로 달고 멸실된 판비(板扉)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1973년에는 인도 확보를 위해 10M 더 도로 안쪽으로 이동하여 지금의 위치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도 더 사직단의 영역이 넓었다는 것을 상상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조선시대의 사직대문의 모습을 살펴보을까요? 구한말의 사직대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사진)** 지금과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사직대문은 태조 3년에 사직단을 지을 때 처음 지어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다시 세운 것이었다고 합니다.

문의 형태가 다른 이유는 이 공간이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제사 공간의 대문은 이 사진의 모습처럼 아래는 판문 위는 홍살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홍살형태의 문을 한 공간은 이 대문 안의 공간이 신성하고 중요한 공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한편으로는 신을 모시는 제사 공간이기 때문에 귀신이 언제고 드나들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도 합니다. 한양 도성 내에 이러한 문의 형태를 하고 있는 공간이 한군데 더 있는데요. 바로 종묘입니다. **(종묘대문 사진) (+종묘 간략)**

사직은 제사의 공간이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공간과 준비하는 공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준비하는 공간 중에 남아있는 곳은 바로 오른쪽, 공중전화 박스 뒤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향청은 조선시대 당시에 향축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임금의 친제시에 왕이 머무는 어재실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공간에 머무르면서 어제시를 남긴 임금도 있었습니다.

### (홍년-숙종-소나무)

이외 공간은 일제 강점기 이후 이 공간을 공원화 하면서 많이 훼손 되어 흔적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 (큰 지도 보거나 작은 지도 준비)

어막대 : 왕이 사직단에 행차시 천막 등을 치고 머물던 곳으로 추정

외 감 : 제사가 끝난뒤에 폐백은 불사르고 축문은 내감(內坎)에 묻어 두었다가 세말(歲末)에 제조가 예조당상, 묘사(廟司), 단사(檀司), 전사(殿司)와 함께 외감(外坎)에 나아가 정결히 태우도록 하라 (영조실록 영조 30년10월10일)

차장고 : 제례 행사시 사용되는 천막등을 보관, 1869년(고종6) 철거

약기고 : 1804년 화재로 건물을 새로 지음. 1869년 차장고 훼손후 약기고를 차장고로 이용

제사 지내는 공간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 (복신문 안으로 이동)

지금까지는 비교적 근현대의 이야기를 했다면 사직공원의 본모습인 사직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디 이 공간은 사직단으로서 조선시대에 토지의 신과 곡식에 신에게 제사 지내는 공간입니다. 조선은 야시다시피 농업국가였습니다.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사가 잘 되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조선을 대표하여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면서 한 해 농사를 빌고, 무탈한 수확을 빌었습니다.<sup>1)</sup>

중세 사회, 그 이전 고대에서부터 제사를 지내는 주체는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아무나 하늘 혹은 땅과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권위를 내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 주현의 사직단

태종대 이후 건립. 군현마다 성 서쪽에 짓도록 함. 한 단이며 석주가 없음. 주사지신, 주직지신, 사는 동쪽에 북향, 직은 서쪽에 위치하고 북향 함. 중춘, 중추 상무일에만 제사

우리나라의 사직은 삼국시대부터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고국원왕 때 국사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으며, 신라에서는 선덕왕 때 사직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에서는 성종에 종묘와 함께 사직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사실 조선 이전까지는 실제로 제사를 행했다는 기록이 없어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조선에는 지금 우리가 서있는 이 곳에 사직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직을 이 곳에 짓게 되었을까요?

조선이 1392년에 개창하고 도읍을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기게 된 것이 바로 1395년입니다. 이 때 도성을 꾸리게 되는데요. 아무런 이유 없이 터 좋은 곳에 궁궐을 짓고 사당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예법인 『주례』 「고공기」에 나오는 ‘좌묘우사’의 원칙에 따라 경복궁을 중심으로 좌측으로는 종묘를 우측으로는 사직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오례라고 하여 왕실의 예법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정해두었습니다. **(길가빈흉군)** 그 중 제사는 길례에 속했다고 합니다. 길례는 바로 길한 날, 즉 기쁜 날의 의례였습니다. 조선의 제사에는 대·중·소의 세 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대사는 임금님이 지내는 중요한 제사가 되고, 중사 소사에 속한 제사들은 왕실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행하는 제사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님이 지내는 대사에는 사직, 종묘, 영녕전 이렇게 세 종류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사직 - 종묘 - 영녕전 순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는 그 중요도가 높은 것부터 나열한 것입니다. 즉, 조선시대에는 종묘보다도 사직이 더 높은 위계에 있는 제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임금들이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직접 제사를 드린 곳은 종묘였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조선은 이후 1897년 대한제국이 되면서 국가제사의 일부가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하늘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조선은 중국의 제후국가로서 하늘에 제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만,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황제국으로 국격이 올라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늘제사의 권한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선호텔 옆에 위치한 환구단이 조성되게 되는 것이지요.

**(현재는 황궁우만 남아있음)**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사 공간은 제사를 드리는 신에 따라서 다르게 조성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와 ‘직’에 대하여 / 천-지-인 -> 원형 - 방형 - 사당

유교국가들은 하늘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둥근 형태의 단에 제사를 올렸고, 땅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네모난 형태의 단에 제사를 올렸으며, 사람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사당, 즉 건물을 만들어서 제사를 올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구단은 동그란 형태의 단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땅신, 즉 사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공간인 사직단은 네모난, 방형을 하고 있습니다. 종묘는 아시다시피 사당 건물 형태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사직단은 태조대에 조성되었지만, 사실 이 때에는 형식적으로 만든 것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태조대에는 나라 건국에 필수적 요소들이었던 제사지내는 종묘와 사직을 만든 것이고, 실질적인 제례의 정비는 태종-세종조에 이루어집니다.

태종대에 대사에 편재되었고, 중국의 예법을 통해 사직 제에 대한 각종 개념을 고증하였습니다. 이때까지 사직에서의 제사는 기우, 기청, 보사, 기고제 등만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직제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는 사직제 뿐만 아니라 조선의 전 예법의 초석을 다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종 1년 정종(공정대왕)의 국상과 함께 국상 기간 동안의 예법을 정리하면서, 국상 중에도 오로지 사직은 평소와 같이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 국상 기간 중 사직

초상부터 졸곡까지 모든 제사는 금하되, 빈소를 만든 뒤에는 사직에만 치제하고, 사직서 관원은 상복이 아닌 평복으로 제사를 시행하되, 本司에 나오면 상복을 입도록 하였으며, 악기는 진설만하고 연주하지 않도록 함

또한 사직서를 설치(세종8년)하여 사직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위패 또한 세종대에 규정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단이 두 개로 나뉘어 있는 반면에 위패는 하나였기 때문에, 국사지신, 국직지신으로 신주를 바꾸도록 정하고, 사직신은 남쪽 중앙에서 북향하고, 후토 후직신은 서쪽 중앙에서 동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모습처럼 사직단의 여러 제도를 정비한 것 역시 세종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서있는 이 공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직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을 원장이라고 하고, 안쪽에 단을 둘러싸고 있는 담은 유라고 합니다. 그 사이 공간에는 판위와 신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입장하신 문을 살펴보면, 이 문은 북신문으로 제례시 신이 이용하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직단 안에는 문이 총 4개가 있는데요. 동서남문은 한칸의 홍살문으로 되어 있는 반면, 북쪽의 문은 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문 보다 격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 문은 제례 시 익힌 고기를 들이는 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임금은 어디로 입장하였을까요? **(임금님의 방위 설명 간략)** 바로 서쪽문으로 입장을 하였습니다. **(사직전도 보여주기)**

**(현재 동선에 대한 이야기, 전하판위 이야기)**

판위는 제사 때 국왕이 서는 자리로 사직서의궐의 단유도설에는 원장의 서문과 판위를 잇는 동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직제사 때 국왕이 원장의 서문으로 들어와 판위에 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신실은 원장 안 남서쪽으로 위치한 건물입니다. 실제로 직신의 네 위판인 국사신, 국직신, 후토씨, 후직씨의 위판을 모셔두는 곳입니다. 평소에는 위판이 이곳에 봉안되어 있다가 사직제사를 거행할 때 제단으

로 옮겨집니다. 사직서의궤의 단유도설을 보면 신실에서 유의 남문을 잇는 동선이 그려져 있으며, 이를 보아 위판을 옮길 때 유의 남문을 통과 했을 것으로 추정 됩니다.

사직의 위판의 역사는 조선시대에 있었던 전쟁과 함께 다사다난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본디 전쟁이 발발하면 임금이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바로 국가제사의 위판, 종묘의 경우는 신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제사의 위판은 국왕의 권위를 증명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정통성을 증명할 수 있는 일종의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p><b>신실</b></p> <p>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진 것을 1596년/선조29년경에 간략하게 복구하여 사용. 1694년/숙종20년에 복구된 신실의 목재가 부패하여 무너질 위험. 같은 해 10월에 기존건물 철거. 새 건물 신축.</p> <p>-신축 시 기존 건물보다 너비를 약 1미터 정도 확장함.</p> <p>-1742/영조18년 8월에는 사직제사 후 사직신의 위판을 신실에 봉안할 때 단사령/전사관/대축 등이 함께 가서 봉안하도록 함.</p> <p>-1745/영조21년 1월에는 호조와 예조의 낭관들이 제사 전에 사직에 나가 봉심 할 때 반드시 망신실례 (사직신의 위판을 모신 신실을 향해 예를 올리는 것)을 시행함.</p>
<p><b># 위판의 칭호</b></p> <p>태조대 (흥무예제에 의거) - 태사지신, 태직지신</p> <p>세종대 - 국사지신, 국직지신으로 변경 [태-황제국에서 사용하는 말임.]</p>
<p><b># 위판의 크기(정조대 편찬된 춘관통고) : 높이 2척2촌4푼, 너비 4촌5푼, 두께 7푼 [영조척- 1척은 약 30cm]</b></p>

임진왜란 때 사직의 신주는 국왕의 피난 보다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이성계가 머물렀던 개성의 목청전에 봉안되었다가, 이후 개성에 있던 인원이 피난을 가면서 목청전 마당에 묻어났었다고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종친들이 반대하자, 이후 평양으로 옮겨 봉안한다고 합니다.

전쟁이 본격화되고 선조가 의주로 피난길을 오르게 됩니다. 이때 당시 세자였던 광해군과 ‘분조’를 하게 되는데요. 일부 위판을 광해군이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임시 왕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전쟁 이후에 사직 위판은 정릉동 행궁에 임시 봉안된다고 합니다. **(정릉동 행궁은 이후 덕수궁이 되는 곳)** 정유재란이 발발하고 이번엔 황해도의 수안군으로 옮겨지게 되고, 전쟁 후 돌아오게 됩니다.

이로써 끝이 아니죠. 인조 때에 병자호란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에는 위판이 강화도로 가게 됩니다. 강화도에서는 위판을 묻었다가 청나라 군대에 들켜 파헤쳐지는 일을 여러 번 당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직의 네 위판은 손상되고, 위판을 바치는 사각형태의 받침대인 부방은 네 개 전부 없어졌습니다.

전쟁 직후 신주와 위판은 창경궁 안의 ‘시민당’에 봉안되었고, 1637년 3월 : 위판이 완전한 것이 없으니 새로 만들자는 의견 대두, 종묘의 신주와 맞물려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 때 사직 위판은 그대로 두고 없어진 부방만 제작하도록 하였는데요. 사직단 부방 크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 봉상시에 소장되어있던 풍운뇌우단의 위판과 비교하여 크기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부방 역시 같은 크기로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단 안으로 입장)**

이제 단 안으로 들어섰으니, 정식 명칭과 사직단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직단의 제단은 사각형인 두 개의 제단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천원지방 사상 중 땅을 관장하는 신에게 올리는 제사이므로 제단의 형태가 방형 즉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제단 중 동쪽에 위치한 것이 토지의 신을 모신 곳이 사단이고 서쪽에 위치하며 곡식의 신을 모신 곳이 직단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직에는 모시는 신이 더 있는데요. 사단에는 후토씨의 위패를 함께 올리고, 직단에는 후직씨의 위패를 함께 올립니다.

사단과 직단의 순서가 헷갈리실 경우, 사단에는 석주가 있고, 직단에는 석주가 없는 것으로 구분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석주가 있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사·직신은 남쪽 중앙에서 북향하고, 후토 후직신은 서쪽 중앙에서 동향하도록 위치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의 위치는 북좌남면이라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종묘의 신주도 북좌남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사직의 신주는 남좌북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직이 음의 공간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단은 3단의 석축으로 되어 있고 단안에는 오방색의 흙이 있고, 그 위를 황토로 덮어두었다고 합니다. 실제 중국의 사직단에 가면 오방색의 흙이 깔려있습니다. **(사진)** 그렇다면 조선은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이는 조선이 제후국가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제후국인 조선은 예법을 정리하는데 있어서도 그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게 됩니다. 특히 사직에서는 제단의 크기, 그리고 제단을 하나로 할 것인지 두 개로 나눌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한 이 신들의 명칭에 있어서도 고민을 하였습니다.

조선이 개창되고 초기에는 대체로 고려의 예법을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려는 황제국이었기 때문에 예법의 대부분이 황제의 그것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 초기 만들었던 것들에서 차츰 예법을 정리하기 시작한 태종-세종 대에 변경된 것들이 많습니다. 신주의 경우, 태사지신에서 국사 지신으로 태직지신에서 국직지신으로 변경된 것이 살펴볼만하다고 할 수 있고요. 오방색 흙의 경우, 오방색 흙을 덮는 것은 황제국에서 행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위에 황토를 덮어 오방색 흙을 덮은 것을 숨겼다고 전해집니다. 후일 중국에서 사신이 행차했을 때 지적당할 것을 염려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선 초기 명나라 사신이 왔을 때, 사직단 등의 예법을 정하는 데 고심이 깊었던 임금이 사신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는데요. 사직의 제단을 하나로 할 것인지, 두 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자문이었다고 합니다. 명나라는 동단, 즉 하나의 단이었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것이기도 한데, 실제 사신은 그냥 조선에서 하던 대로 해라, 라고 해법을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사직단의 모습과 같이 사단과 직단으로 2개의 별단으로 나뉜 것은 세종14년에 확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과 베트남의 사직단은 한 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곳은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제사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사직제사는 중춘(2월), 중추(8월)의 상무일, 그리고 납일에 정기제사를 지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3번에 제사는 왕이 참여해야 합니다. 이 외에 기쁜날, 흥한날 등을 신에게 고하는 기고제 등도 비정기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임금이 직접 제사를 지내는 것은 친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직에서의 친제는 어느 왕대 처음이었을까요?

바로 세조대입니다. 이전까지는 신하를 대신 보내는 섭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사직이 종묘보다 상위에 있지만, 실제로는 종묘보다 관심도가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사직 친제의 시점이 조금 늦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성종대 2번(2년, 16년), 중종대 5번(2년 2회, 18년, 22년, 35년) 등의 사직 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직은 조선시대 임금이 지내야 하는 제사 중 으뜸이었습니다. 하늘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제후국의 임금으로서 자연신에게 제사지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직제사는 한 번의 전환 국면을 맞는데요. 바로 대한제국 선포 이후입니다. 고종대 황제국이 선포되면서, 이제 조선이 아닌 대한제국이 되게 되는데요. 즉, 제사의 격도 황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일전의 국사지신, 국직지신의 신위가 바로 태사지신, 태직지신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원구단이 세워지면서 하늘 제사도 가능하게 되지요.

순종 2년(1908년) 칙령 제 50호에 제사 횟수를 원구단은 1년 1회, 사직단 1년 2회, 종묘 1년 4회, 문묘 1년 2회로 규정.

사직 제례 순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직제례의 날짜가 정해지면 임금은 궁궐에서 일주일 전부터 제사를 준비합니다. 이를 재계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전각에서 산재 4일, 정전으로 돌아와 이를 치재 후 제사 하루 전에 사직의 재궁인 안향청으로 들어옵니다.

제관들 역시 재계를 7일동안 행하였는데요, 이 때 사전에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를 서계라 하여, 재계에 정성을 다할 것을 선언하는 의식을 치루게 됩니다. 산재 4일(집) + 치재 3일(나머지 2일은 근무관저) + 사직 재소에서 재계.

예모혈 - 영신(사배례) - 전폐(국왕은 향을 피우고, 전폐작주관이 폐백을 각 신위에게 올림) - 진찬(고기진설 소-양-돼지 순) - 작헌(헌관이 술을 전폐작주관에게 주면 국사신(-후토-국직-후직 순서로 올림, 악기연주, 축문 낭독시에는 악기연주 중단)에게 올림) - 음복(수작도 함께) - 철변두 - 송신(송신 후 임금은 대차로 돌아가 면복을 벗음) - 망예(아헌관이 담당, 축판과 폐백을 예감에 묻음)

사직제례시에도 악공과 일무원들이 함께하였는데요.

유 안쪽에는 등가가 위치하여 노래와 현악기 연주를 담당하는 악공들이 있었으며, 바깥쪽에는 헌가가 위치하여 관악기 악공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일무원들은 등가와 헌가 중간 위치에서 일무를 추었습니다.

**# 제례악**  
 유의 북문 안에 배치되는 등가 : 노래와 현악기 담당  
 유의 북문 밖에 배치되는 헌가 : 타악기와 관악기 연주 담당  
 등가에 노래와 현악기만 편성 할 경우 음량이 작아지므로 실제 편성 시 관악기의 일부가 등가에 편성됨.

**# 일무** : 열을 맞추어 추는 춤으로 등가와 헌가의 중간위치에서 이루어짐  
 ~ 문무 : 문덕 칭송, 왼손에는 약(대나무피리), 오른손에는 적(나무+꿩 깃털 장식 의물)  
 ~ 무무 : 무공 칭송, 왼손에는 간(방패), 오른손에는 척(도끼)

**# 세종대 사직제례 정비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제사음악의 개정.**  
 박연이 주도한 아악정비 과정에서 이루어짐.  
 박연은, 제사는 사람과 신이 교제하는 것이므로 그 음악은 양의소리와 음의 소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사직 제사에서는 오직 양의 소리만 연주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를 양성과 음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  
 악서편찬, 생(생황)/우(피리)-악기제작, 악공의 복식을 개정

임진왜란 이후로 약기가 많이 손실되고, 기록도 많이 사라져서 그 이전의 것을 회복시키지는 못하였다고 합니다.  
(제후국 6일무, 황제국 8일무)

자 이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직단 뒤편 역시도 원래 전체 권역에 포함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전사청영역임을 알 수 있는데요. 사직 제사에 쓰이는 음식을 준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근대로 들어서면서 이곳이 공원화 될 때 가장 많이 옛 흔적을 지운 공간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복원을 위한 발굴공사가 한차례 마무리 되었다고 하고요. 실제로 관리사무소 공간을 옮기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직단 복원공사는 문화재청의 몇 년 대계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공간에 실제 주민들이 사용하는 건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이 공간이 ‘복원되어야 한다,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보다,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 담겨 있는 여러 이야기를 기억해주시면 그것이 또 한편의 복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문화재와 문화재 복원 또 조화 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직단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문화숨결 궁궐길라잡이 김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